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병역제도 개편] 정책 질의서

앞으로
제대로
나를위해
이재명

대한민국국민당 제2차 대선행동본부

정책본부 답변서

□ 질문지

■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

1. 한국군의 상비 병력은 2022년 기준 50만 명입니다. 현재 한국군의 병력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적정하다
- 적정하지 않다
- 기타 의견 :

2. 1990년대부터 다수의 연구 결과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평화 공존의 상황에서 한국군 적정 병력의 규모를 약 3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징병제 국가 병력 규모의 평균 수치를 한국군에 대입하면 평균으로 40만 명, 중위수로 25만 명 정도로 추산되기도 합니다. 육군본부 역시 <육군 비전 2050>에서 2050년 가능한 상비 병력 규모를 30~35만 명으로 추산하였습니다. 한국군 병력을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기타 의견 : 이재명 후보는 '21.12.24일 40만 정예강군 건설 구상을 공약으로 발표했음. 15만명의 징집병을 전투부사관 5만명, 군무원 5만명 및 민간 외주화 등으로 효율화·대체하여 상비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임.

3. 한국군이 대규모 병력과 사단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사 시 북한 안정화 작전' 때문입니다. 유사 시 북한 지역을 점령한다는 계획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군의 목표를 북한 공격이나 점령이 아닌 '방어'로 분명히 정립하고 이에 따라 군사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사 시 북한 안정화 작전 계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군의 군사전략 목표는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여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비군사적 위협에 동시 대비하는 것임. 이는 북한을 포함한 외부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최단시간 내 최소피해'로 전쟁에서 조기 승리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함. 차기정부의 군사전략은 현 군사전략 기초 및 목표와 연계하여 신중한 검토 하에 정립될 것임.

4. 상비 병력 규모 감축에 따라 예비군 규모도 감축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여부와 함께 예비군 적정 병력 규모와 예비군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 국방부의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을 계승·발전시켜, 예비전력 내실화 및 강화를 추진할 것임. 이 과정에서 예비군 적정규모를 재판단하고, 무기체계 등 장비·물자를 보강하며, 예비군 훈련체계 및 제도를 발전시킬 것임.

■ 병력 구성과 병역 형태

1. 한국군의 장성수와 장교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 기타 의견 : 장군정원 감축은 현 추진중인 '국방개혁 2.0'에 따라 '22년 360명 수준으로 감축될 계획('17년말 436명 대비 82.6%)으로, 차기정부도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 또한 이재명 후보가 既발표한 선택적 모병제 공약에 따라 군구조는 징집병 위주 상비병력 구조에서 간부중심 병력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장교정원은 이에 준해 검토될 것임.

2. 병역 제도 개편 시 장교 / 부사관 / 병의 인원과 비율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 공약은 40만 정예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교·준사관 6.7만명(16.75%), 부사관 18.5만명(46.25%), 징집병 14.8만명(37%)으로 군구조를 개편하는 구상을 담고 있음. 간부 對 병사 비율을 기존 40:60에서 63:37의 간부중심 선진형 병력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임.

3. 병역 제도 개편 시 육군 / 해군 / 공군의 인원과 비율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후보의 스마트 강군 건설 및 선택적 모병제 구상에 따라 군종별 구성을 포함, 스마트한 군구조로 전환할 것임.

4. 병역 제도 개편 시 병역 형태(의무병, 지원병)은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선택적 모병제 공약은 현행 국민개병제 유지 하에 징집병(의무)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고,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지원) 5만명을 증원하는 것이 핵심임. 이에 따라 간부(지원) 對 병사(의무) 비율을 63:37의 선진형 병력구조로 전환 및 운용할 것임.

5. 전면 모병제 혹은 징모 혼합제를 도입할 경우, 지원병 모병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병사를 모집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 선택적 모병제 공약의 기본개념이 징모혼합 형태임. 우수 병역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급여 외에 전역 시 사회 정착용 목돈을 지급하고, 다양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 군복무 중 야간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창업 지원, 사회 진출을 위한 경력인증제도, 경력직 군무원 채용기회 부여 등

6. 육사, 해사, 공사, 3사를 통합한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장교 선발 구조를 단순화하고, 장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장교 선발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기타 의견 : 육·해·공 3군간 합동성 역량 및 사관생도 교육의 합동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에 맞는 장교 선발 구조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

7. 의무병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적절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적 모병제 공약은 현행 국민개병제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징집병 축소 및 전투부사관·군무원 총원 등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라 병 복무기간도 자연스럽게 단축될 것으로 판단됨.

■ 부대 구조 개편

1.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부대 구조 개편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 8 → 6개 군단, 39 → 33개 사단으로 줄이고 있으나 이는 2005년 <국방개혁 2020>의 6개 군단, 20개 사단으로 감축 안보다도 후퇴한 계획입니다. 27개의 국직부대를 10개 안팎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계획 역시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역 제도 개편 시 부대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既 발표된 스마트 강군 건설 공약에 따라 군구조의 스마트화를 실현할 것이며, 변화된 전장환경에서 속도감 있는 작전이 가능하도록 지휘체계를 단순화할 것임.

■ 군 복무환경 개선

1. 의무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 (“2027년 병사월급 최저임금제에 맞춰 200만원 이상 보장”, '21.12.24 공약 발표)
- 동의하지 않는다
- 기타 의견 :

2. 임금 인상 외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은 무엇입니까?

- 군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現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 소인실로 전면 개조하고, 민간인 고용 직영 및 민간 외주화를 통해 군 급식 수준을 한층 높일 것임. 군복무 중 학업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취득학점 확대는 물론 학점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고,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것임.

3. 향후 평시 군 사법 체계의 완전한 민간 이관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기타 의견 : 이재명 후보는 평시 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갑질 등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군이 아닌 검경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21.8월). 이는 국회를 통과한 군 사법 개혁안(‘21.8.31)*과 동일한 입장임.
- * △군사법원이 재판해온 범죄 중 특정범죄(성폭력범죄, 군인·군무원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군인·군무원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권)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모두 민관으로 이관, △고등군사법원 폐지 및 항소심을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 등

4. 최근 도입된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 부대 방문 조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군인권보호관을 전담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증원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기타 의견 : '21.12.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따라 군 인권보호관의 부대내 조사 등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어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 기대함. 군 인권보호관 권한에 대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근절할 것임.

5. 군대 내 성폭력과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망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는 동안 군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군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거부해왔습니다. 군 인권을 증진하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 이재명 선대위는 '22.1.5일 "반복되는 군대 성폭력 악습을 끊어내겠다"는 공약 발표를 통해 군대내 성폭력을 아군에 대한 아군의 공격, 명백한 인권 유린,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은 성폭력 근절 방안을 제시했음.
 - ①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 독립적 사건처리가 가능한 엄정한 체계 구축, 피해자를 보호부터 회복까지 통합적 지원
 - ② 군대내 '성고충전문상담관' 대폭 확대 배치 : 철저한 독립성 보장 및 권한 강화
 - ③ 군 인권보호관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독립성 보장 : 군 조직 폐쇄성 타파
 - ④ '신고 전 지원제도' 도입 : 공식적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 지원
 - ⑤ 2차 가해 처벌 및 2차 피해 대응 체계 강화
 - ⑥ 군 성폭력 통계 및 조치내용을 담은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 대국민 공개

6. 2021년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으로 국민적 공분이 있었고 각종 제도가 보강되거나 법률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가 미비한 문제보다는 제도 운영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젠더 감수성이 부족한 군 조직 문화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군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군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2차 가해도 성범죄에 준하여 처벌하기 위한 국방부 성폭력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상기 내용과 동일 (이재명 선대위, '22.1.5일 군대 성폭력 악습 근절 공약 발표)

7. 군인의 직업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모든 간부에게 근속 20년을 보장하되, 군인 연금의 수령 개시 시기를 현행 전역 이후에서 정년 이후로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이재명 선대위는 군 간부의 신분, 생애, 복무 주기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및 보상 체계 개선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여군 확대

1. 국방부는 2022년까지 여군 비율을 현 간부 인원 대비 8.8%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군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선택적 모병제 실현 과정에서, 전투부사관 등 여군 간부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 여군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상기 군 복무환경 개선 및 군대 성폭력 근절 공약의 내용을 포함, 여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임.

■ 병역 제도 개편의 정책적 실현 방안

1. 병역제도 개편은 국방, 외교, 경제, 젠더, 청년 등 다양한 층위의 정책적 문제가 범사회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슈이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집권 후 숙의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관 부처,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망라한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가칭)'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후보는 지속적인 국방혁신으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음('21.12.24). 국방정책을 집행하는 행정 전문가, 국방정책에 정통한 민간전문가, 군을 운영하는 군사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병역제도 개편 등에 대해 민·관·군간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질 것임.

2. 병역 제도 개편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빠르게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제시하고 있는 병역 제도 개편 관련 공약의 임기 내 실제 이행을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 既발표된 스마트 강군 건설 및 선택적 모병제 공약에 따라 관련 과업목표를 임기 내 달성할 것이며, 국방예산 효율화를 통해 소요예산을 조달할 것임.

■ 기타

1. 위의 질의에서 다루진 내용 외에 후보자가 구상하는 병역 제도 개편 방안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정책, 시기가 있다면 추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무기체계 첨단화 및 핵심전력 확보를 추진할 것임.

- 핵·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전력 강화
- 지상부터 우주까지의 무인 감시정찰체계 및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선 전력화
- 핵심전력 강화 R&D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자주국방 역량 확충
- 인공지능, 초연결, 초융합 등 첨단기술 투자를 통한 미래전 게임체인저 확보
-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 및 한국형 조기경보위성체계 등 국방우주네트워크 구축 및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